

[바둑]

이창호-목진석-이영구 '원익배 10단전'서 격돌

〈9단보다 잘 두는 9단〉



〈이창호 9단〉 〈목진석 9단〉 〈이영구 6단〉

바둑의 최고 단수인 9단을 따낸 신의 경지에 이르렀다고 해서 입신(入神)이라 칭한다. 그렇다면 9단을 넘어선 10단은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10단은 없다. 하지만 국내 대회 중에서 유일하게 원익배 십단전에서 우승을 하면 '9단보다 잘 두는 9단'이라는 뜻으로 명예 10단으로 부른다.

9단 위 10단을 차지하기 위해 신년 벽두부터 목진석·이창호 9단·이영구 6단이 격돌하고 있다.

지난해 연간 최다 대국, 최다승 기록을 세운 목진석이 유리한 고지

작년 최다승·최다 대국 기록, 목진석 결승 선착

이영구 "무관 설움 풀겠다" 이창호와 결승 다름

를 선점했다. 목진석은 지난 12일 서울시 홍익동 한국기원 대국실에서 벌어진 이 대회 준결승전에서 백홍석 5단을 맞아 284수만에 백5집반승을 거두며 결승전에 올랐다.

목진석은 이번 대회에서 최기훈 초단, 김환수 2단, 전영규 2단, 이정우 6단에 이어 백홍석까지 차례로

뛰고, '10단의 영예'에 가장 근접해 있다.

19일 준결승을 치러야 할 이창호와 이영구는 갈 길이 바쁘다. 이창호는 올해에만 6연승을 거둬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신년 벽두 열린 2007년 바둑대상 시상식장에서 "갑나게 하겠다"며 공개 도전

장을 내던졌던 이세돌 9단이 빠져 심경기는 하지만 그 누구보다 우승에 목말라 있는 상태다. 1기 대회 때 10단의 경지에 올랐던 그것기에 발걸음이 더욱 바빠졌다.

이영구도 무시하지 못할 우승 후보다. 이영구는 제1, 2, 3기 원익배 십단전에서 모두 본선에 진출했지만 한 번도 우승을 하지 못한 한을 풀겠다는 기세다.

바둑계에서 초단을 수졸(守拙·졸렬하나마 제 스스로는 지킬 줄 안다)로 부르는 등 모든 단마다 애청이 있다. 10단은 공식 애청은 없지만

인간의 바둑 실력을 넘어섰다고 해서 신선(神仙)으로 부르기도 한다.

공식적으로 10단이 주어지지 않는지만 이들 고수들이 신선이 되기 위해 벌이는 한 판 승부는 신년 바둑계의 가장 큰 볼거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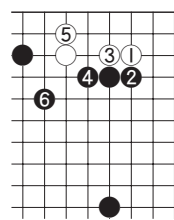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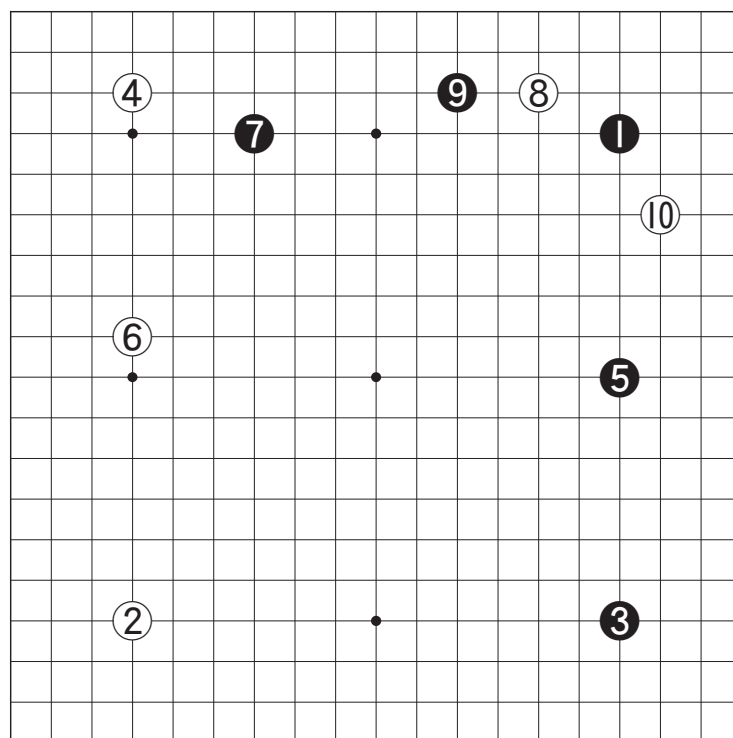
한편 이번 대회 상금은 우승 3천 500만원, 준우승 1천500만원이며 제한시간은 각자 10분에 40초 초읽기 3회다. 돌을 맞춘 사람이 흑백을 결정한다. 결승전은 오늘 26일께로 잠정 결정됐지만 사정에 따라 2월2일에 열릴 수도 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제5회 KBC사랑배 초등 최강부 결승전

어린이 바둑대회의 꽃 1보(1~10)

白 양문영 (비야초등 6) 黑 김영환 (금구초등 6)



〈참고도〉

가자적이 주어지기 때문에 명실공히 실력을 갖춰야만 하고 최고의 실력자들의 대결이기 때문에 그만큼 경쟁도 치열하다. 어린이 바둑대회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번 대회의 결승에는 금구초등학교 6학년인 김영환군과 역시 비야초등학교 6학년인 양문영군이 수많은 강자들을 물리치고 진출하여 제5 우승컵을 놓고 격돌하게 되었다.

흑을 둔 김영환군은 그동안 전국체전의 대표선수로 선발되는 등 이

지역 초등부의 강자로 알려져 있고 백을 둔 양문영군 역시 수많은 입상경력을 자랑하는 이지역의 대표 급이다. 긴장되는 외나무다리에서 제대로 된 호적수를 만난 셈인데 과연 누가 우승컵을 가져갈 수 있을 것인지.

먼저 흑을 둔 김영환군이 흑 1,3,5로 유명한 3연성을 펼쳐며 싸움꾼을 면모를 드러내자 백을 둔 양문영군도 2,4,6의 변형된 중국식으로 맞서 한판의 완력대결을 예고하고 있다.

흑 9의 협공에 백 10이 독특한 응수였다. 이 수는 보통 '참고도'의 6까지가 가장 많이 두어지는 정석으로 무난하다. 그러나 이것은 흑의 주문이라고 보고 일찍부터 양문영군이 판을 비틀고 있다.

〈오규철 9단·본보 바둑해설위원〉

“조선 王중 바둑왕은 세조”

소설가 이청씨 '한국 바둑사' 발간

임진왜란때 바둑 응용 방법 구사도

“전쟁은 한 판 바둑입니다. 이 정도에서 판을 거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임진왜란 당시 명나라 장수 진유격은 선조에게 왜군의 휴전 요청을 받아들여야 하며 바둑을 빗대 말했다. 당시 조선의 선조·이순신·유성룡과 일본의 도요토미 히데요시·가토 기요마사, 명나라의 심유경 등 전쟁 핵심이었던 사람들은 모두 바둑에 푹 빠져 있었다. 이들은 때때로 전쟁에서도 바둑을 응용한 방법을 구사하기도 했다.

역사적 자료를 토대로 새롭게 한국 바둑사를 정리한 책이 발간됐다. 이청의 '한국바둑사'에는 중국 '산해경'을 비롯해 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의 바둑사가 모두 담겨있다. 책은 시대 순으로 25편의 바둑 이야기로 구성돼 있다.

특히 중국과 일본에 비해 국내 바둑사 정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이 책의 출간이 학계의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저자는 조훈현, 이창호, 이세돌에 이르는 세계바둑의 초고수들이 국내에서 잇따라 탄생하는 비결을 역사에서 찾고 있다.

조선은 왕과 서민이 따로 없이 바둑을 가까이했다. 태종의 측근들이



가장 바둑을 잘 뒤 '바둑왕'으로 꼽을 정도. 이들은 상금을 걸고 측근들의 바둑 시합을 구경하며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다는 것이다.

이 책은 조선시대 최고의 고수는 숙종 때 장문의, 영조 때 한대수를 꼽는 등 조선 국수들의 계보를 시대별로 정리했다.

국내 바둑의 기원에 대해서도 추적하고 있다. 고대 기자조선과 더불어 한반도에 바둑이 유입되고 마한에서 한국의 바둑사가 시작됐다는 것이다.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이 다 바둑을 즐겼지만 백제가 특히 강했다.

새로운 주장도 담겨있다. “청동기 시대인 3천년 전의 갑골문자에서 당시에 이미 바둑을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었다”는 등의 흥미로운 발견이 그것이다. /오광록기자 kroh@



한일 바둑 열정인 이슬아 초단(왼쪽)과 일본의 우메자와 유키리 5단이 지난 8일 중국 항저우시 티엔위엔호텔서 열린 제6회 정관장배 세계여자바둑최강전 본선1국에서 맞붙었다. 이슬아는 267수 끝에 꿀맛 같은 반집승을 거뒀다. (사이버오로 제공)

이세돌 1수 둘때마다 수입 얼마나?

한국 바둑 상금 랭킹 1위인 이세돌 9단이 둘 한 수를 둘 때마다 수입은 얼마나 될까? 이세돌은 지난해 상금으로 5억9천여만원을 벌었다. 여기에 이미 준우승을 확정지은 LG배 세계기왕전, 삼성화재배의

상금을 합치면 총수입은 7억2천여만원. 이 기간 이세돌이 치른 대국은 모두 104차례이며, 81번을 이기고 23번은 졌다. 판 당 바둑판에 깔리는 흑백 돌은 평균 204개. 절반이 이세돌이

한판 평균 수입 690만원
돌 1수에 6만7천원 벌어

돈 둘이라고 본다면 판당 102개의 돌을 둔 셈이다. 104 경기를 치르면서 1만608개의 돌을 바둑판 위에 올려놓았고, 1수를 둘 때마다 6만7천원을 벌었다는 계산이 나온다. 한판당 대국료는 무려 690여만원.

베트남에 바둑 '한류열풍'

베트남에 불고 있는 한류 열풍은 바둑계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2007년 한국 바둑리그우승팀인 영남일보 이영구 6단, 김지석 4단 등 한국 프로기사들이 베트남에서 한류 열풍을 일으키고 있다.

리그 우승팀인 영남일보를 비롯해 7개팀 감독과 선수 30여명이 지난 12일부터 5일간 베트남 호치민시에서

한 사람이 여러 사람과 동시에 바둑을 두는 다면기 형식의 특별지도기를 했다.

현재 베트남 호치민시에는 50여명의 현지인이 바둑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0년 전부터 바둑 동호인들이 늘고 있지만 아직은 불모지나 다름 없는 국가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